

쓰노 유킨도 《小農-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  
소농,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용감한 영웅들

한미 FTA 협상 체결을 반대하는 함성이 바다 건너 미국 땅에서도 거세게 휘몰아쳤다. 도시서 나서 도시서 자랐으니, 객관적 자료로는 그들의 주장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꼭 저기까지 가서 저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슬며시 파리를 틀고 자리 잡는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난 농민들의 마음을 알 턱이 없다.” 대학 시절, 농활(농촌활동)에 가서야 잠시 농기구를 쥐어 보았을 뿐, 손에 흙 한 번 제대로 묻히지 않고 자랐으니 말해 무엇할 것인가.

집약 자급소농은 우등생 자격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子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이제 써먹기도 낯간지러운 말이 되었다. 요즘 같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린 농업이 어찌 우리의 주축 산업일 수 있으며,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 버린 우리말이나 다름없다. “농사짓는 사람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농부들에게 농자천하지대본은 이제 ‘립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 좋은 품질로 수입 농산물의 파고를 넘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면 걱정조차 없을 터.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들이 하나 하나 문 닫은 것을 보면서, 우리네 농부들은 이제 곧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는 선부른 전망이, 선부르다고만 하지 못할 것이다.

《小農-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는 역발상의 제목으로 신선한 책이다. 소농이 어떻게 지구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요즘 다시금 유행하는 ‘태권 V’나 ‘독수리 오형제’ 급은 아니어도, 세계 경찰로 자부하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급이나 되면 모를까, 소농(小農)이 어찌 지구를 지켜왔단 말인가.

저자 쓰노 유킨도의 주장은 단순하다. “소농이 열심히 지켜 내려온 ‘뿌리박은 삶’은 바로 그들의 농업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리가 지구를 지켜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동아시아의 주민들이 전개해온 집약 자급소농은 우등생이 자격이 있다”고 치켜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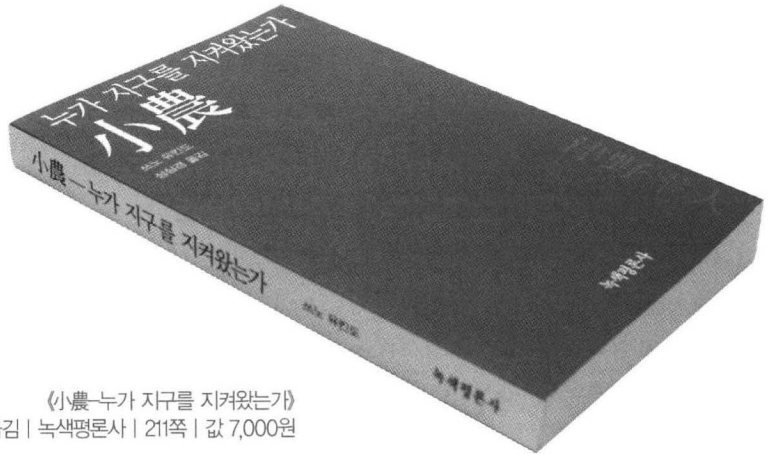
풍토, 대지와 대기의 접점에서 빚어진 순자연물

사실 소농은 선진화(‘선진화’의 의미는 따로 논하지 않기로 하자)되면 될수록, 저자의 표현을 빌면, ‘농업근대화’는 소농이 농업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대화를 ‘역사의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그 입장에서 농업을 보아온 것이다. 그것을 의식하거나 하지 않거나 강자를 ‘가(可)로 약자를 ‘부(否)로 간주하는 가치관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생태적 미래를 생각할 때, 공업화의 전략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 즉 농업중심의 순환사회가 아니고는 장기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소농이 어떻게 지구를 살려왔는지 들여다보자. 저자는 ‘소농





《小農-누가 지구를 지켜왔는가》  
 쓰노 유킨도 지음 | 성삼경 옮김 | 녹색평론사 | 211쪽 | 값 7,000원

은 풍토를 살린다'는 한 문장으로, 소농이 지구를 이제껏 살려왔다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풍토란 “그곳의 대지(大地)와 대기(大氣)의 접점에서 빚어진 순자연물이다. 따라서 가격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극히 가치가 높은 것”이다. 대기의 저면(底面)과 대지의 표면(表面)이 결합한 화합물과 같은 것으로, 대기와 대지를 갈라놓을 때에는 이미 풍토가 아닌 셈이다.

결국 소농은 대지와 대기의 접점에서 빚어진 순자연물을 가꾸는 사람이며, 대기의 저면과 대지의 표면이 결합한 화합물의 새롭게 빚어가는 창조적 일꾼이다. 소농은 창조적 일꾼이면서 부지런한 일꾼이다. 풍토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야외조사에 의한 관찰이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풍토의 이용은 자연순응이 기본이지만 작물이 그 풍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즉 환경이 부적당하더라도 필요한 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번역자는 '역자 후기'에서 “요즈음 각광을 받고 있는 '환경농업'이라는 것도 경쟁과 수출을 전제로 한다면 이미 환경농업일 수 없으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실천방법은 가족형 소농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소농이 없는 걸까. 꼭 그렇

지만도 않다. 농약오염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소비자들은 유기농업과 자연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열심히 찾고 있고, 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된 도농직거래 운동의 고리가 조용하지만 이미 큰 시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만 있다면, 그리고 이 움직임이 알음알음 퍼져나가기만 한다면, 이 땅을 살린 소농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나선 태권 V처럼

주변에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간다. 그만큼 나이를 먹어간다는 징표일 수도 있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어 밀려난 이들이 숨어들 곳이 농촌일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증좌(證左)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사람들, 이 책의 제목처럼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던가.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대답을 찾을 때면 늘 긍정적인 대답을 찾으라는 마음속 울림 때문일까. 농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송고히 나선 태권 V 혹은 독수리 오형제처럼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

장동석 기자